

“나눔으로 맺은 우리는 한가족”

불교사회복지회 자원봉사자 후원인 가족축제 봉사시간 따라 메달수여... 이상량씨 복지대상 받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춰 봅시다.”

10월 21일 대구 영남이공대학 운동장. 필러리는 만곡기 아래 2000여명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남노소노가 한데 엉켜 뛰고 춤추고 웃는다.

지역복지회 이끄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마련한 ‘2006 자원봉사자 후원인 가족축제’ 현장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기쁨이 있는 나눔! 축제가 되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우리어린이집, 대구남구시니어클럽, 관오사, 여래원, 남구청소년자활지원관 등 19개 기관과 지역 10여개 기업체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했다. 평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묵묵히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거두고 나눠줬던 봉사자들은 50여명의 천막아래 터를 잡고 한 가족이 됐다.

오전 9시 30분 쇠소리 풍물단의 길놀이 에 이어진 성화 봉송으로 가족축제는 열기를 머금고 가족, 나눔, 축제, 행복 4개 테마로 나눠 벌어진 소망탑세우기, 한마음달리기, 흥부네 박터뜨리기, 천수천안수퍼볼, 줄다리기 등의 경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미래의 지역사회공동체를 구현하는 실험의 장으로 열린 가족축제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강제성도 없다. 서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장터를 열고 경기에도 참여하며 행복을 만들어갔다. 특히 함께(LET'S)의 의미를 담은 ‘마음 화폐 사용이 돋보였다.

현 사회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화폐로 환산해 사용했다면 가족축제에선 안 보이는 마음과 노력봉사에 대한 가치도 환산해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화폐이름도 ‘마음’이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나눔과 봉사는 또 다른 가치로 창출되어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즉 내가 남을 위해 마음을 쓰고 봉사한 만큼 나도 또



불교사회복지회가 개최한 자원봉사자 후원인가족제는 나눔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열심히 봉사한 댓가로 모두에게 2000마음씩을 나눠줬다.

또, 미래지역공동체사회를 대비해 봉사자들의 봉사시간 적립제도를 갖춰놓았다. 젊고 힘 있을 때 10시간의 봉사를 했다면 늙어 힘이 없을 때 다시 우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넘게 봉사 활동한 봉사자들이 기념품과 증명메달을 받았다. 매주 토요일 나눔마당에 나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행사진행을 맡아온 이상량 거사가 올해의 복지대상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최문성

대구경북포교사단 단장

대구경북포교사단은 올해 11기 신규 포교사를 무려 98명이나 배출했다.

450여 포교사가 활동하는 지역최고의 포교신행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포교사단의 수장 최문성(59) 단장. 그는 2000년 포교사고시에 합격해 5기 포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하면서 경북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불교포교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좋아 사찰 안내팀에서 즐겁게 활동했으며, 사찰 안내팀 총무, 팀장을 거쳐 대구경북포교사단 특별위원과 감사로 두루 역임하고, 직장불자회에서도 시정유마회 교화부장, 동구정일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온 지역 불교의 ‘씨알’이다. 게다가 그는 2000년 포교사단이 처음 창단되었던 당시부터 어렵게 포교활동을 이어왔

으로 구성된 포교사단을 이끌자면 24시간이 모자라지만 3명의 부단장과 특별위원들 7명의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력 있는 대구경북포교사단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찰순례단을 만들었고, 매월 2회 사찰안내특강을 실시하고 매주 의식집전 습의를 익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 앞으로는 월1회 포살법회도 가질 생각이다.

“불교포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당 들어가는 법만 가르치면 됩니다.”

최문성 단장은 그의 포교노하우를 이렇게 밝혔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절집에 발 한 번 들어놓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포교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최문성 단장은, 얼마 전 집 근처 공원에서 기독교인들이 차 한 잔과 성경구절

6년전부터 사찰안내하며 포교노하우 쌓아

29개팀 포교사단 이끌며 나아갈 방향 늘 고민

다. 그래서 누구보다 불교현실을 잘 알고, 포교사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깊이 고민한다.

최문성 단장은 지금도 첫 포교활동을 잊지 못한다. 원력을 세워 포교사고시에 합격하고 불교문화까지 공부했지만 스님조차 포교사가 뭔지 모르던 시절 할 일이 없었다. 누구하나 찾은 이 없었지만 사찰안내를 하겠다고 주말마다 은 해사를 찾아갔다. 여름이면 피아벌 아래서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1년을 꼬박 버틴 결과 대구경북포교사단은 은해사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포교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하심 하는 법을 배우고, 포교사가 어떻게 활동해야하는지를 터득하게 됐다”는 최문성 단장. 그는 늘 후배포교사들에게 ‘하심’을 강조한다. “포교사 자격증은 옷장 속에 깊이 넣어 두었다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거의 매일 포교사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최문성 단장은 오랜 공직생활 노하우를 살려 사소한 사무일까지 직접 챙기는 실속파다. 또, 말보다는 행을 우선하는 참 불자다. 19개 분야 29개 팀

이 적힌 리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전 포교사들도 거리에 나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원도 급증했고 역할도 갖춰졌다.

또, 포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도 중추부터 전문인까지 다양한 인재들이 모였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털어놓으며 교도소며 군법당이며 부지런히 드나드는 참불자도 많다.

특히 이번 신규포교사는 5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배출됐다. 그 어느 기수보다 자신감과 열정, 사명감이 크다.

포교사단이 도약의 단계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대로 도약의 날개를 펴야하기에 어깨가 무겁다. 먼저 제정확정도 튼튼히 해야 하고, 10여 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450여 포교사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삼을만한 수평관 불사에도 원력을 내본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호남지사 : (062)375-9986
-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용문사 성보유물관 4일 낙성식 윤장대 실물크기로 복원·공개

경북 예천 용문사(주지 정안)는 11월 5일 오후 4시 성보유물관 낙성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용문사 성보 유물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약 250여평(816.48㎡)규모의 목조한식 구조로 지어졌으며, 지하1층에는 기원전시실과 다목적 영상실, 휴게실, 기예실, 지상1층에는 수장고와 제1, 제2전시실 학예사실 안내로비 등을 갖췄다.

보물684호 윤장대(회전식 불경보관대)로 유명한 용문사는 성보유물관은 제2전시실에 윤장대를 실물과 같은 비율로 복원(사진)해 모든 관람객이 윤장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용문사는 낙성식을 기념해 5일 오후 2시부터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다. (054)655-8695

배지선 기자

“만가지 쉼의 터 다져 성불하리”

해인사 4~5일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 봉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를 대적광전과 보경당에서 봉행한다.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한 법신계로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야 할 신행규범이며 불도를 이루기 위한 최상승 보살계로 알려져 왔다.

고려시대까지 출가수행자와 재가자가 같이 받아 지냈으나 조선조 이후 그 의미가 없어졌던 것을 해인사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불로 판명된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출현한 무생계첩을 통해 복원했다.

해인사 무생계첩은 고려시대 각성 스님이 지금 스님에게 받은 것으로 계첩에는 “무릇 무생계(無生戒)는 천성(天聖)을 세우는 명이요, 만선(萬善)이 생겨나는 터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이 이 계법을 받지 않고서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다. 계목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보살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해인총림은 “한국불교의 산실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매년 설해오던 보살계를 발전시켜 불교수행의 완성을 위한 무생계를 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생계대법회는 11월 4일 오후 4시부터 해인사를 창건하고 중수한 역대 조사님들의 위패를 해인사 비석거리에서 수레에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입재에 들어간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을 모시고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 생사해탈 할 수 있는 법문을 듣고 밤9시부터 영가천도와 바라춤공연, 월야광명기도를 올린 후 5일 오전 7시 30분 폐불봉안을 하고 수계식을 봉행한다.

수계의식은 조계종정 법전 대중사의 증명래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율원장 무관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행해진다. (055)934-3000

배지선 기자

원주 종교인 친선축구대회

지역 종교인들이 축구로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회장 정두환)는 10월 21일 치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원주지역 종교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축구대회에는 원주불교축구동호회를 비롯해 세계교회회 바울축구선교단, 구국성당 세실리아축구선교단, 명륜2동 생활축구동호회 등 3개 종교 4개 팀 1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크리스탈 난타공연단’의 행사 축하 공연에 이어 참가 4개 팀 간의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 우승은 2승 1무를 기록한 구국성당의 세실리아축구선교단이 차지했다.

정두환 원주불교축구동호회 회장은 “지역사회 종교인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교회를 이해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 불교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창단됐으며, 현각 스님(성불원 원장)이 지도봉사로 있다.

남동우 기자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마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수목장, 남골탑, 천불전 무료 분양

靈林寺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천연경관이 수려한 경내 수목장 500주, 부도탑(남골탑) 500기, 천불전 1천불을 조성 불자들을 위해 **시설 일체를 무료개방**하고 유족들에게 연중 모든 숙식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시설비 일체 : 무료
- ◆ 유족 방문시 숙식 : 무료
- ◆ 각종제(천도제, 기일, 명절제사) : 무료
- ◆ 봉안·관리비 : 월 8천원

조감도

대한불교수목장보급회 <http://www.sumogjang.co.kr>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잠실운동장 1시간 20분 96km)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사찰에 수목장, 부도탑, 천불전 조성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02)562-0821